

본격적인 개방화가 시작될 9월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어제 미국이 토마호크 미사일로 아프카니스탄의 테러기지과 수단의 화학무기 관련 시설을 공격했다는 보도가 23일 조간 1면 머릿기사로 실렸다. 이는 2주 전 케냐와 탄자니아 주재 미국대사관 폭파에 대한 보복이라고 한다. 미사일 폭격의 위력이 얼마나 큰 지 철골이 다 부서진 앙상한 건물이 처참하다.

이번 우리나라에 지리산부터 시작한 폭우를 미사일 폭우라고 한다. 여러 지역을 돌아가며 마치 마시일로 폭격하듯 비를 들이 부었기 때문이다.

많은 양돈농가들이 피해를 입었다. 물론 인명피해를 입은 유족들에게 무슨 위로를 한들 진정한 위로가 되겠는가? 참으로 우리 민족의 시련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지구상에는 41개 나라가 홍수로 큰 재앙을 당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양자강 범람으로 1억2천만명의 수재민이 발생하고 3천여명이 생명을 잃었다니 그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21개 나라는 비가 오지 않아 한발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니 자연재해의 위력 앞에 인간의 무력함을 느낀다.

이런 속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계속 공격하는 경쟁사회란 자연재해보다도 우리를 더욱 피곤하게 만든다.

얼마 전 축협에서 쇠고기 가격을 40% 내려 판매한 적이 있었다.

축협매장 앞에는 쇠고기를 사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준비된 쇠고기가 일찍 매진되어 고객들이 되돌아가는 등 장관을 연출했었다.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도 경쟁적으로 수입쇠고기를 덤핑 판매하여 쇠고기 전쟁이 한국의 좁은 땅에서 있었다. 이번 쇠고기 덤핑 판매는 축협 냉동창고에 저장된 쇠고기가 가정 냉장고의 냉동실로 자리를 옮기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사업의 성패는 누가 판매를 잘 하느냐에 달렸다. 최종 소매단계에서 누가 더 잘 파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 이를 위해서 가격도 싸게 하고 품질도 높인다.

지난 주 한국에 상륙한 세계 최대의 소매점 월마트와 국산 토종 E마트와의 전쟁은

지난 주 한국에 상륙한 세계 최대의 소매점
 월마트와 국산 토종 E마트와의 전쟁은 한국에 상륙한 고질라에 살아
 남기 위한 처절한 투쟁이었다.
 이번 일로 월마트는 수십억원을 투자해 월마트가 싸다는 홍보를 하지
 않고도 E마트와의 가격경쟁으로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해 값싼
 매장이라는 홍보를 쉽게 하게 되었다.

한국에 상륙한 고질라에 살아남기 위한 처
 절한 투쟁이었다.

이번 일로 월마트는 수십억원을 투자해
 월마트가 싸다는 홍보를 하지 않고도 E마트
 와의 가격경쟁으로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
 해 값싼 매장이라는 홍보를 쉽게 하게 되었
 다.

정보에 의하면 9월초에 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이 아닌 2겹살)를 이들 양판점을 통
 해 값싸게 대량 판매 전략을 펼 것으로 보
 여진다.

이번 경쟁에서 밀리면 우리나라 양돈산업
 이 벼랑으로 몰리게 되므로 협회는 관련기
 관들과 긴밀히 연대하여 대책을 세우고 있
 지만 국제화·개방화라는 것이 얼마나 힘드
 는가를 체험하게 된다. 그동안 양돈업을 국
 제경쟁력이 있고 수출산업으로 발전하여 세
 계 최대 돼지고기 수입국인 일본시장에 금
 년에는 미국 다음으로 최대 수출국이 되었

다는데 안심하는 사이에 국내시장이 흔들리
 게 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이 높
 아지고 양돈업의 각 분야에서 불필요한 낭
 비 요소를 제거하여 더욱 강건한 체질로 발
 전할 수 있는 점도 있지만, 이제 돼지고기
 비수기를 앞두고 충격적인 경쟁은 힘든 싸
 움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이미 예측하였던 양돈산업의 구조
 변화가 시작되려 하고 있다. 9월은 우리 축
 산업계에 힘든 달이 될 수도 있지만, 소비자
 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고 우리 양돈
 업이 새로 태어나는 계기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는 양돈업과 관련된
 모든 연관산업과 어떻게 유관관계를 유지하
 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력에 따라 결정되어
 질 것이다. **養豚**